



거울보다 낯선

5.6~29 디스위켄드룸

오세원 | 씨알콜렉티브 디렉터

디스위켄드룸은 광상원과 박신영의 2인전 <거울보다 낯선(Far in My Mirror)>으로 한남동 시대를 열었다. 이전 청담동 시대를 밀거름으로 새로운 도약이 기대된다. 이번 개관전은 이전보다 넓어진 새 전시공간을 사적이면서 철학적인 전시제목으로, 그리고 다양한 표현형식과 자조적으로 침잠하는 작업내용으로 가득 채웠다. 광상원과 박신영의 2인전이라고보다 4인의 그룹전으로 착각할 정도로 두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다른 매체와 다른 감각의 작업을 드러내듯이 말이다. 거울 속에 비친 왜곡되고 차이나는 상으로부터 동일시를 탈피하여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은 주변의 모든 것을 나와 대립시키는 사유의 과정일지도, 정합적인 과정에서 누락된 나를 발견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주변 환경은 나에게 적대적인 동시에 소외와 상실감을 안겨주는 낯선 곳일지도 모른다. 협력기획자인 안재우 큐레이터는 광상원과 박신영의 작업에서 '낯선 환경 속의 나'라는 공명하는 지점을 도출해내었다.

아크릴페인팅 작업에서 광상원은 수행행위로서의 인식처를 검은 곡선에서 찾는다. 반복된 붓 터치들은 캔버스 전체를 구성하면서 동시에 주변과 인물 사이 또는 내러티브 간 경계를 -스테인드글라스 작품처럼 -공고히 하기보다는 파편화하여 모호하게 흐리는 기능을

한다. 이는 주변과의 동화 또는 대화를 시도하는 듯하기도, 반대로 소통 불가함을 드러내기도 한다. 반면 이전의 검은 곡선들은 오일 페인팅작업에서 표현적인 색면으로 변화였고, 심지어 살짝 사라지거나 채도 낮은 음울한 톤이 되어 또 다른 정서를 드러낸다. <My Land>, <My Blue>, <Blue Water> 같은 작품의 제목이 암시하듯, 광상원은 타자화된 음울한 자아를 중앙에 등장시켜 주변과 대립각을 만들고 세상에 홀로 기투로서 불안과 소외의 존재적 염세관을 부추긴다. 다만 마치 라디오헤드의 앰비언트 사운드(ambient sound)를 눈을 감고 들으면서 나타나는 찬상 이미지같이, 작가는 <treefingers> 작품을 통해 자연스럽고 익숙하지만 낯설게 변한 주변, 반대로 고독한 나를 통해 동화될 수 없는 사회 속 개별자의 우울감을 증폭시킨다.

모노타이프나 잉크 수채, 그리고 와인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종이작업에서, 박신영은 여러 외지에서 느끼는 낯섬과 외로움의 감정들을 극대화된 생경한 색채의 대립과 매체 간 반응을 통해 뽀족한 감각으로 드러낸다. 다분히 즉흥적 상황을 만들고, 동시에 작가적 치열함과 치밀한 조각의 과정을 반복하여 최상의 결정체를 탐색한다. 특히 <Hold Your Hobbyhorse>는 작가의 이런 모든 프랙시스(praxis)가 응축되어 있다. 다양한 매체와 여러 층위에서 수고의 과정을 거쳐 판화와 태운 나무의 정교하고 정치한

디테일을 보여주는 이 작업은 우연과 필연의 섞임이 만들어내는 의식적 무의식적 개입과 철수, 그리고 선택과 버림을 반복하며 추출된 최상의 결과이다. 작가는 특히 다양한 경험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외부의 자극과 흡수, 또는 분리라는 작용 반작용을 반복하며 감각만을 체화시킨다. 또한 매체를 대할 때에도 이미 체화된 긴장감으로 화면과 매체 그리고 몸과의 조화로운 긴장감을 증폭시키며 작업하길 즐긴다. 또한 와인이나 태운 나무, 또는 커피같이 시간과 촉각뿐만 아니라 냄새까지 동원하며 매체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총체적 감각을 발동시키길 즐긴다. 결국 작가는 매체와 감각표현을 부차적으로 돌리지 않고 전면에 드러냄으로써, 매체와 감각표현의 경계와 긴장을 끝까지 붙들고 견디려는 실천과정 자체가 형식뿐만 아니라 '정체성'이라는 내용 자체를 적극적으로 피력한다.

두 작가 모두 자기 모습을 사회라는 거울에 투영한다. 작업에 거울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동시대적 물음이기도, 총체적 삶에 대한 애착이기도, 홀로선 개별자의 몸부림이기도 하다. 광상원과 박신영이 매개하는 낯선 사회는 결핍이 만든 보다 낯선 '나'를 발견하는 실천과정인 것이다. ●



왼쪽 광상원 <My land>(사진 왼쪽) 캔버스에 유채 194×130cm 2021  
박신영 <From Sunset to Dawn>, <Bats on the rainbow>(사진 오른쪽) 37.9×28.7cm 2019  
오른쪽 광상원 <Blue Water>(사진 오른쪽) 캔버스에 유채 194×130cm 2019